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
배 포 일	2020. 3. 26.(목) / (총 18매)			
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	과 장	박 혜 경	전 화	043-719-9050
	담 당 자	전 은 정		043-719-9064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국내 발생 현황 [정례브리핑]

-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3월 26일 0시 현재, 총 누적 확진자수는 9,241명(해외유입 284명*(외국인 31명))이며, 이 중 4,144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. 신규 확진자는 104명이고, 격리해제는 414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.

*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

<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(3.26일 0시 기준, 1.3일 이후 누계) >

구분	총계	결과 양성				검사 중	결과 음성
		확진자	격리해제	격리 중	사망		
3. 25.(수) 0시 기준	357,896	9,137	3,730	5,281	126	14,278	334,481
3. 26.(목) 0시 기준	364,942	9,241	4,144	4,966	131	14,369	341,332
변동	7,046	104	414	-315	5	91	6,851

○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지역별 확진자 현황 (3.26일 0시 기준, 1.3일 이후 누계) >

구분	합계	서울	부산	대구	인천	광주	대전	울산	세종	경기	강원	충북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	검역
격리중	4,966	280	35	3,349	32	8	24	17	36	275	12	25	56	3	5	643	33	2	131
격리해제	4,144	80	75	3,039	11	11	6	20	8	122	18	14	68	7	3	601	57	4	0
사망	131	0	2	94	0	0	0	0	0	4	1	0	0	0	0	30	0	0	0
합계*	9,241	360	112	6,482	43	19	30	37	44	401	31	39	124	10	8	1,274	90	6	131
(전일대비)	(104)	(13)	-	(26)	(1)	-	(6)	-	-	(14)	-	(1)	(1)	-	-	(12)	-	-	(30)

※ 3월 25일 0시부터 3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, 기초조사서 접수,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
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

□ 전국적으로 약 82.2%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.
기타 조사·분류중인 사례는 약 14.7%이다.

지역	확진환자									주요 집단 발생 사례
	누계	해외 유입	집단 발생 관련					기타*	신규	
			소계	신천지 관련	집단 발병	확진자 접촉자	해외 유입 관련			
서울	360	68	266	7	197	37	25	26	13	구로구 콜센터 관련(96명), 동대문구 동안교회-PC방 관련(20명) 등
부산	112	2	76	11	49	16	0	34	0	온천교회 관련(32명), 수영구 유치원 관련(5명) 등
대구	6,482	2	5,463	4,391	347	725	0	1,017	26	한사랑요양병원 관련(101명), 대실 요양병원(78명), 김산요양병원 관련 (32명), 대구파티마병원 관련(19명) 등
인천	43	7	34	2	27	3	2	2	1	구로구 콜센터 관련(20명) 등
광주	19	4	14	9	0	2	3	1	0	
대전	30	1	18	2	10	6	0	11	6	산림기술연구원 관련(3명) 등
울산	37	6	24	16	1	4	3	7	0	
세종	44	0	42	1	38	3	0	2	0	해양수산부 관련(29명), 운동시설 관련(8명)
경기	401	47	309	29	210	57	13	45	14	상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(68명), 구로구 콜센터부천 생명수교회 관련(44명) 등
강원	31	2	22	17	5	0	0	7	0	원주시 아파트 관련(3명) 등
충북	39	0	26	6	11	9	0	13	1	괴산군 장연면 관련(11명)
충남	124	5	112	0	112	0	0	7	1	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(103명), 서산시 연구소 관련(8명) 등
전북	10	3	1	1	0	0	0	6	0	
전남	8	1	4	1	0	2	1	3	0	
경북	1,274	1	1,115	554	388	172	1	158	12	청도 대남병원 관련(120명), 봉화 푸른요양원(68명), 상주순례 관련(49명),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(36명) 등
경남	90	2	72	32	35	5	0	16	0	거창교회 관련(10명), 거창군 웅양면 관련(8명) 등
제주	6	2	0	0	0	0	0	4	0	
검역	131	131	0	0	0	0	0	0	30	
합계	9,241	284 (3.1%)	7,598 (82.2%)	5,079 (55.0%)	1,430 (15.5%)	1,041 (11.3%)	48 (0.5%)	1,359 (14.7%)	104	

※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. 이에 따라, 특정 시점에서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,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* 기타는 개별사례,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,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

-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, 전일 대비 2명이 자가격리 중 추가로 확진되어(접촉자 2명)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160명*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.

* 동일 건물 직원 97명(11층 94명, 10층 2명, 9층 1명), 접촉자 63명

- 경기에서는 시흥시 소재 어린이집(미래키움어린이집)에서 교사 1명이 확진되어 접촉자 48명*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고,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.

* 원아 33명, 교사 14명, 학부모 1명

- 대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며, 3만 3,256명 중 224명(0.7%)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.

- 또한 정신병원 종사자 1,007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완료되었으며, 검사 결과가 확인된 847명 중 1명(0.1%)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.

- 대구 동구 소재 의료기관(대구파티마병원)에서 3월 17일부터 현재까지 19명*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. 확진자들은 대부분 71병동과 72병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, 해당 병동에 대해서는 동일집단 격리(코호트 격리) 중이다.

* 19명 중 환자 10명, 직원 5명, 보호자 4명

- 최근 해외유입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,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.

* 3.26. 0시 기준 신규확진자 104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39건(37.5%)

· 유럽 25, 미주 11, 중국 외 아시아 3 / 내국인 34, 외국인 5 / 검역 30, 지역사회 9

* 기존 확진자 중 18명 해외유입으로 추가 확인

- 정부는 3.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3월 27일(금) 0시부터 미국발(發)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.
-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,
 -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,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.
-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,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.
 -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-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, 음성이 확인 되어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.
-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‘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’을 입국단계에서 의무 설치하여 발열 등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.

-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게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.
-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조하면서 지인·직장 동료 등에게 전파를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해주시고, 가족 간 전파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지침을 준수(별첨4)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.
- 유럽과 미국 이외 지역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외출, 출근을 하지 말고,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,
 - 의심증상(발열, 기침, 인후통, 근육통, 호흡곤란 등) 모니터링하여 발생시 관할보건소, 지역콜센터(☎지역번호+120)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(1339)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,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,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.
 -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.
- 질병관리본부, 국토교통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‘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’을 오늘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.

-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이하 감염병예방법)」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,
-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, 빅데이터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져 확진자 이동동선과 시간대별 체류지점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, 대규모 발병지역(핫스팟)을 분석하여 지역 내 감염원 파악 등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해진다.
-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종교시설과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3.22일부터 4.5일까지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당부하였다.
-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시면서, 꼭 필요한 생필품 구매, 의료기관 방문, 출퇴근시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직장에서 식사 시에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, 손씻기 등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- 사업주들께서는 직원 좌석 간격을 확대하거나, 재택근무, 유연근무 등을 통해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권고했다.

- 또한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
-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, 일부 실내 체육시설*, 유흥 시설 등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.

* 무도장, 무도학원,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

-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, 사용자 간 거리 유지,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.

-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 전에는

- ① 콜센터 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
- ② 선별진료소*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.

* 보건복지부 누리집 (www.mohw.go.kr, 상단배너 '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'),
질병관리본부 누리집 (www.cdc.go.kr, 상단배너 '선별진료소')

-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,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.

-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, 비호흡기질환 진료구역을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(외래·입원)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「국민안심병원」을 이용해 줄 것도 당부했다.

- ※ ① 「코로나19 대응지침」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
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
③ 고혈압·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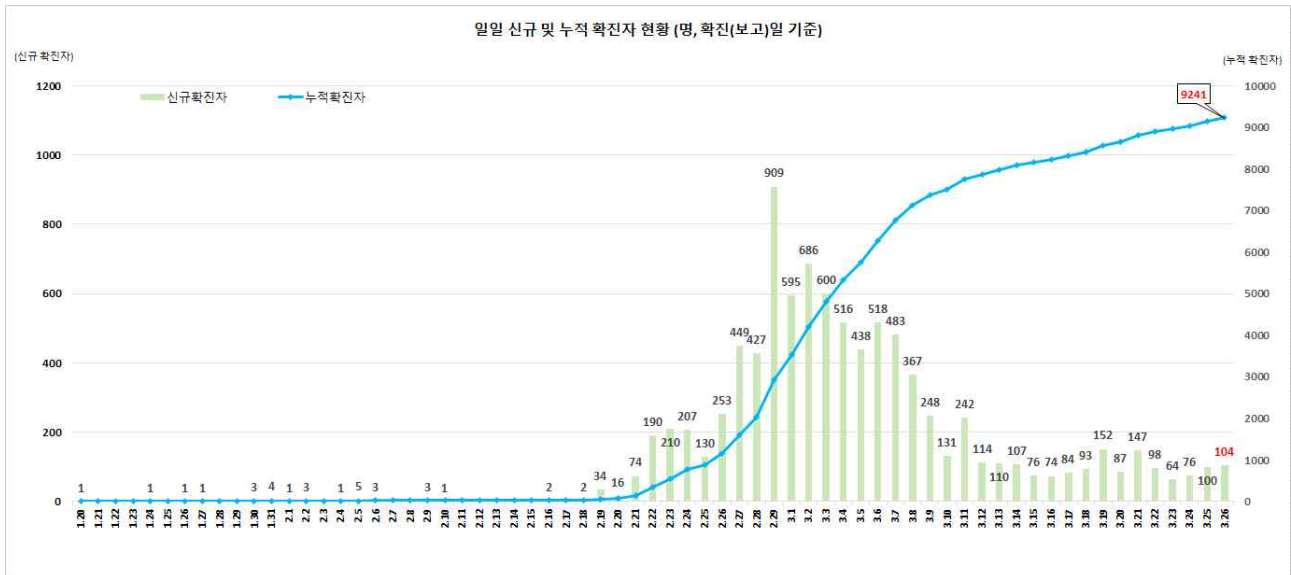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,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<붙임> 1.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
2.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
3. 코로나19 보도 준칙 [한국기자협회]
4.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- <별첨> 1.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
2.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
3. <입국자>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
4.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
5.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
6.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
7.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
8. <일반국민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
9. <확진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
10. <격리자>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
11. 마스크 착용방법 홍보자료
12. ‘여행력 알리기’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
13.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자료
14.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

붙임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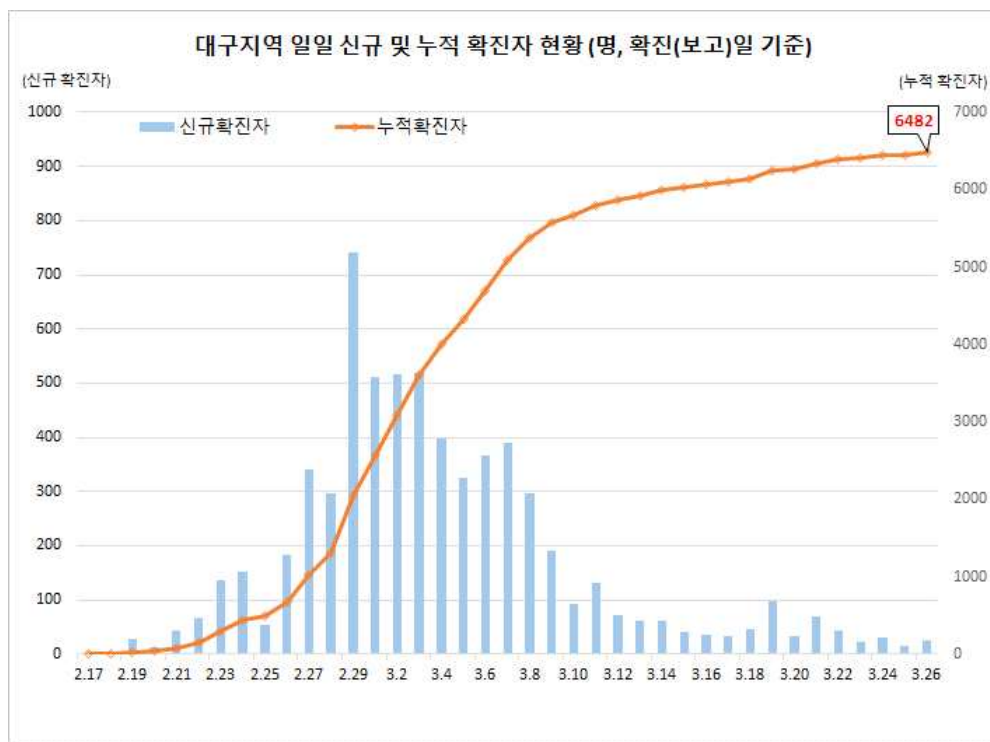
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

1 확진자 일별 추세 (3.26일 0시 기준, 9,24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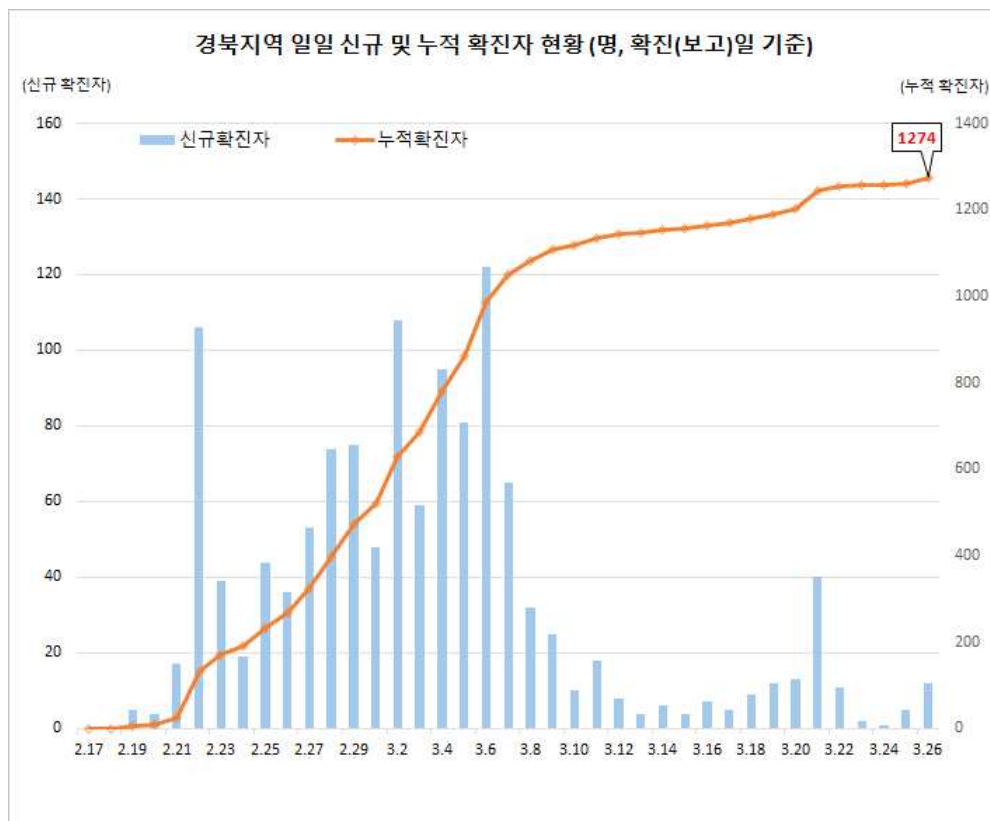


< 대구/경북 지역 일별 신규/누적 확진자 현황 >

대구지역
확진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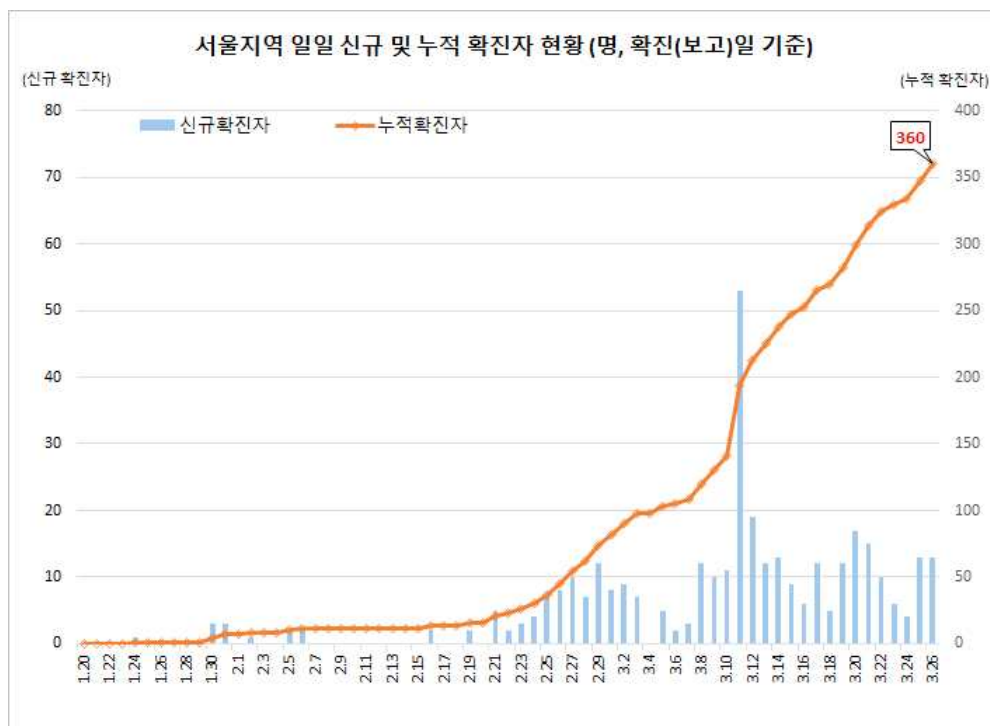


경북지역
확진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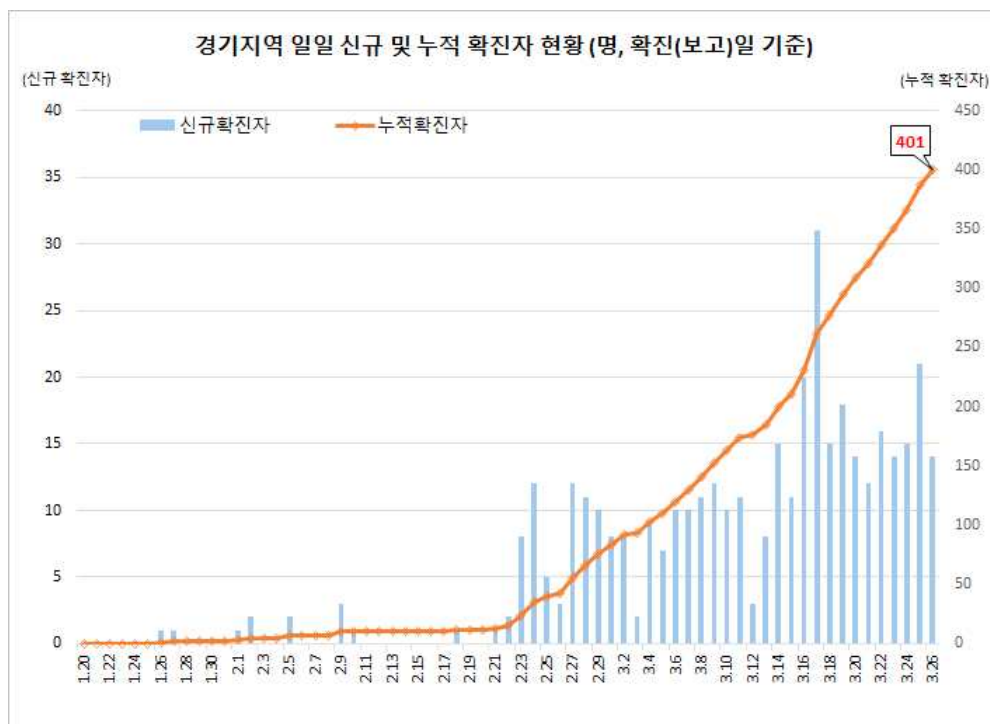


< 서울/경기 지역 일별 신규/누적 확진자 현황 >

서울지역
확진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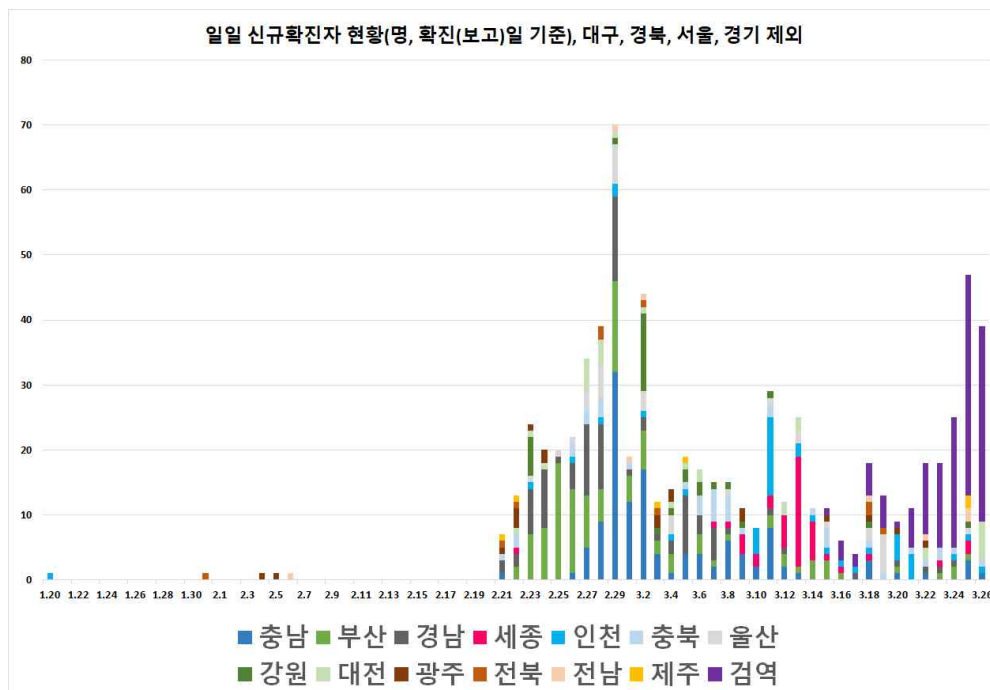


경기지역
확진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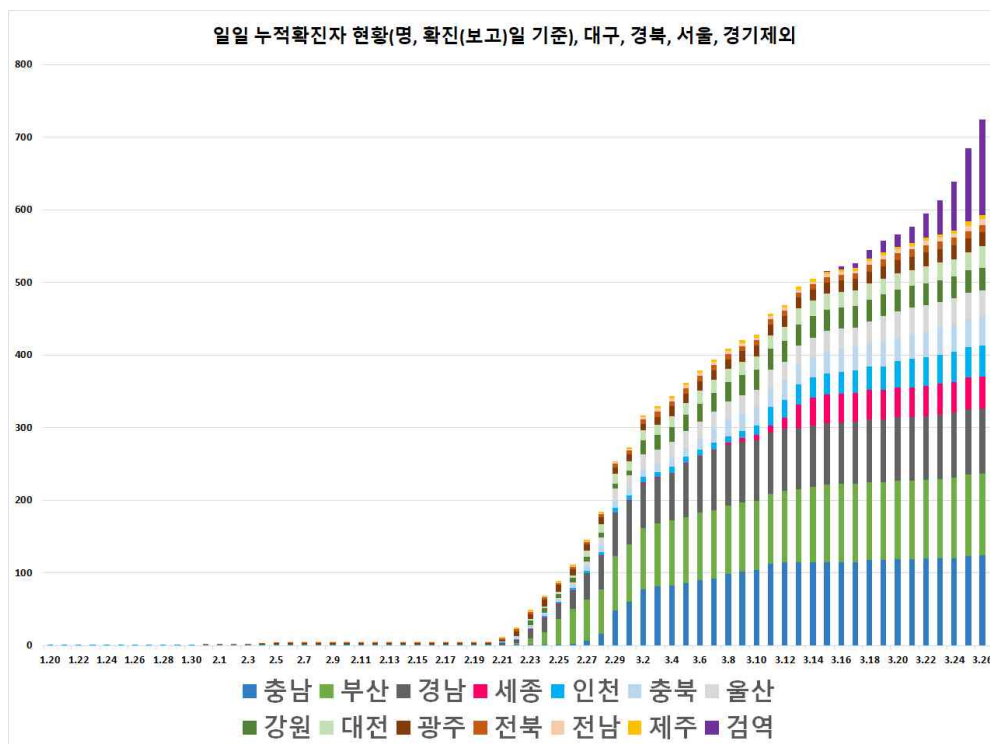


< 대구/경북/서울/경기 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현황 >

일별 신규
확진자 현황



일별 누적
확진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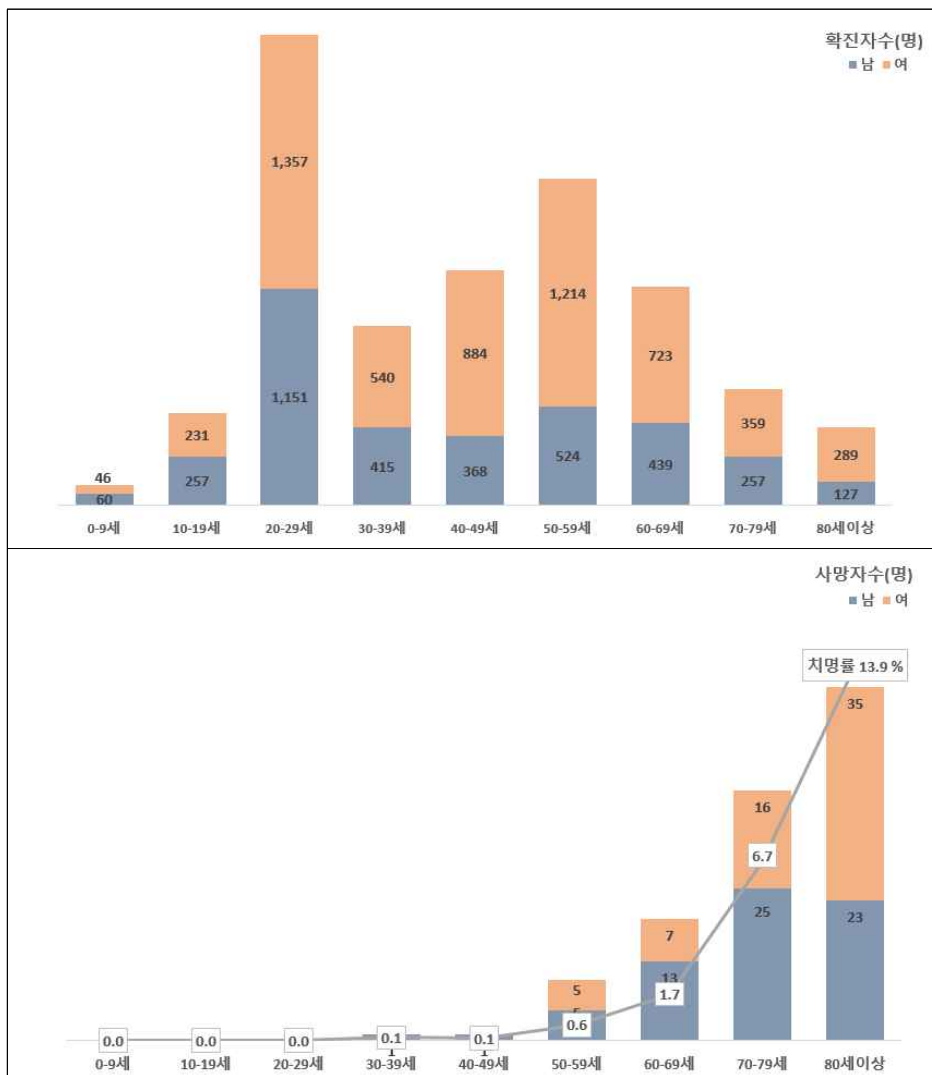


3 확진자 성별, 연령별 현황 (3.26일 0시 기준, 9,241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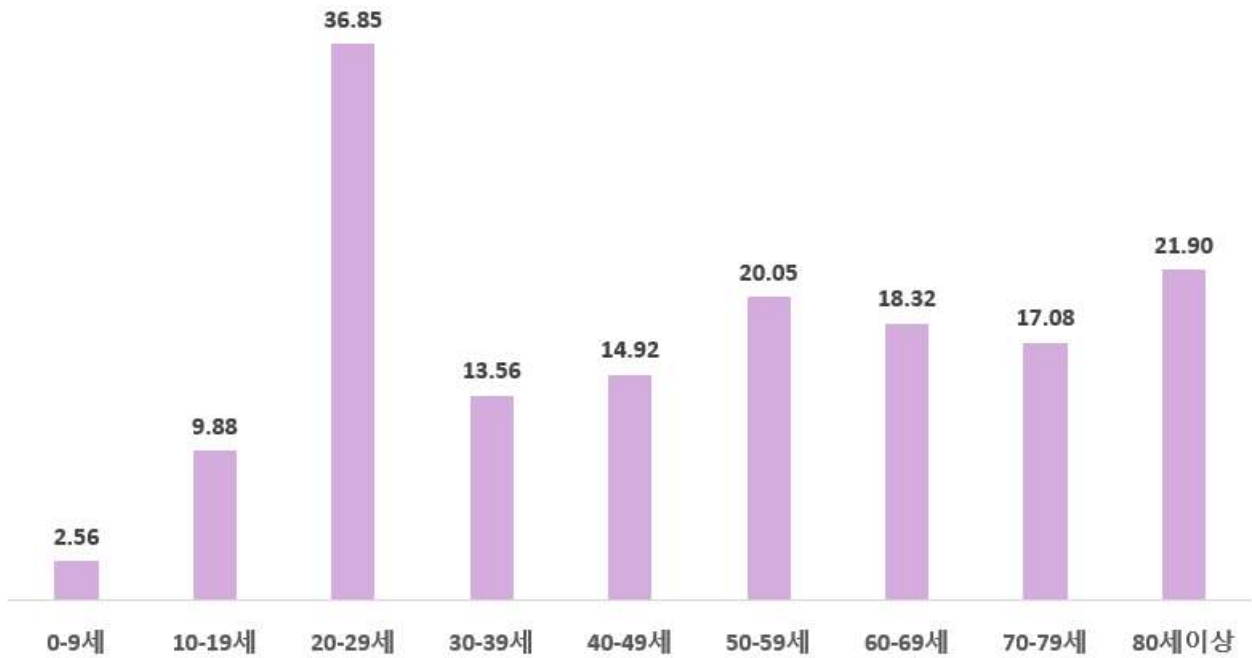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구 분		확진자 (%)	사망자 (%)	치명률(%)
계		9,241 (100)	131 (100)	1.42
성별	남성	3,598 (38.94)	68 (51.91)	1.89
	여성	5,643 (61.06)	63 (48.09)	1.12
연령(세)	80 이상	416 (4.50)	58 (44.27)	13.94
	70-79	616 (6.67)	41 (31.30)	6.66
	60-69	1,162 (12.57)	20 (15.27)	1.72
	50-59	1,738 (18.81)	10 (7.63)	0.58
	40-49	1,252 (13.55)	1 (0.76)	0.08
	30-39	955 (10.33)	1 (0.76)	0.10
	20-29	2,508 (27.14)	0 (0.00)	-
	10-19	488 (5.28)	0 (0.00)	-
	0-9	106 (1.15)	0 (0.00)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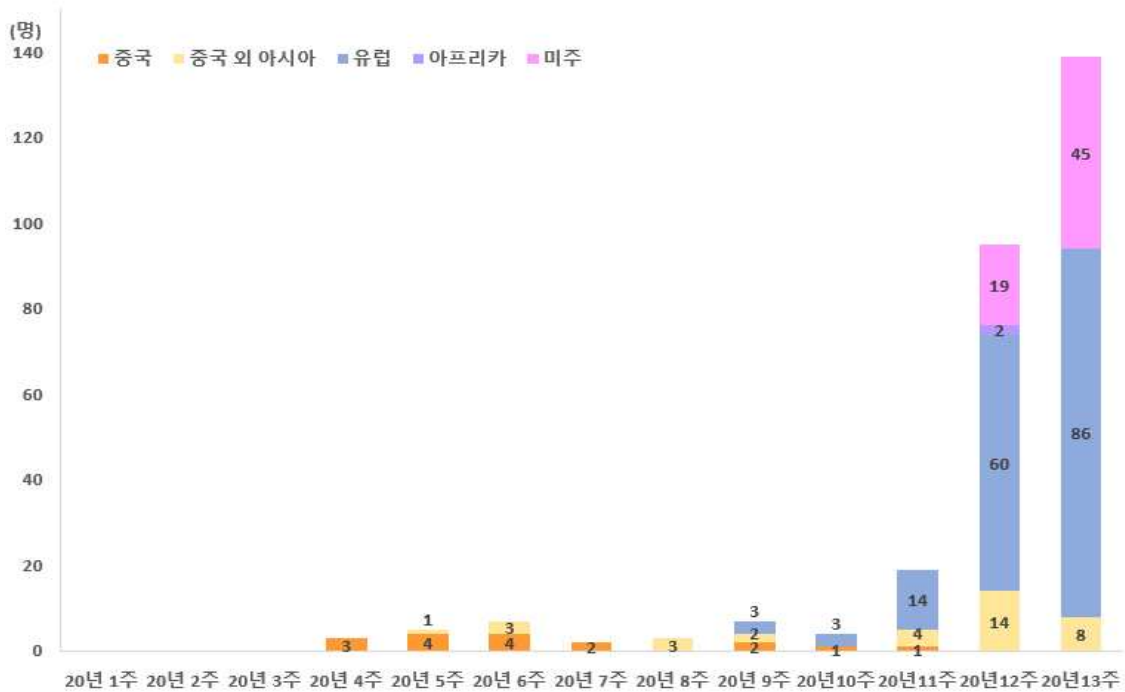
* 치명률 = 사망자수 / 확진자수 × 100



4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



5 해외유입 추정 현황



신고주차	확진자수(명)	여행국
04	중국 3	-
05	중국 4	-
	중국 외 아시아 1	일본
06	중국 4	-
	중국 외 아시아 3	태국, 싱가포르
07	중국 2	-
08	중국 외 아시아 3	싱가포르, 말레이시아, 베트남, 캄보디아, 홍콩
09	중국 2	-
	중국 외 아시아 2	태국, 일본
	유럽 3	독일, 터키, 이탈리아, 프랑스
10	중국 1	-
	유럽 3	이탈리아, 독일, 스페인, 프랑스
11	중국 1	-
	중국 외 아시아 4	필리핀, 태국
	유럽 14	이탈리아, 프랑스, 영국, 스페인, 체코, 폴란드
12	중국 외 아시아 14	태국, 필리핀, 이란
	유럽 60	프랑스, 영국, 이탈리아, 스페인, 네덜란드, 독일, 오스트리아, 스위스, 헝가리, 포르투갈, 아일랜드, (모로코)
	아프리카 2	이집트
	미주 19	미국, 캐나다, 콜롬비아
13	중국 외 아시아 8	필리핀, 태국
	유럽 86	프랑스, 영국, 스페인, 독일, 오스트리아, 아일랜드, 벨기에, 네덜란드, 체코, 헝가리
	미주 45	미국, 콜롬비아, 미국,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

* 신고 기간(주)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(주) 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

붙임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

□ 환자 발생 8,000명 이상 국가 지난 1주간 발생 동향

	3.20일	3.21일	3.22일	3.23일	3.24일	3.25일	3.26일	누적 사망자수 (치명률 %)
중국	80,967명	81,008명	81,054명	81,093명	81,171명	81,278명	81,285명	3,287명(4.0%)
이탈리아	41,035명	47,021명	53,578명	59,138명	63,927명	69,170명	74,386명	7,503명(10.1%)
미국	13,159명	18,563명	24,148명	33,073명	43,214명	53,268명	68,285명	926명(1.4%)
스페인	17,147명	19,980명	24,926명	28,572명	33,089명	36,673명	47,610명	3,434명(7.2%)
독일	15,320명	19,848명	22,213명	23,974명	29,056명	32,986명	37,323명	206명(0.5%)
이란	18,407명	19,644명	20,610명	21,638명	23,049명	24,811명	27,017명	2,077명(7.7%)
프랑스	10,995명	12,612명	14,459명	16,018명	19,856명	22,302명	25,233명	1,331명(5.3%)
스위스	3,438명	4,840명	6,113명	7,014명	8,060명	8,836명	9,765명	103명(1.1%)
영국	3,269명	3,983명	5,018명	5,683명	6,650명	8,077명	9,529명	463명(4.9%)
총 국가수	149개국	153개국	158개국	162개국	166개국	169개국	171개국	
총 환자수	229,049명	256,587명	287,170명	317,796명	357,080명	394,669명	445,155명	
총 사망자수	9,700명	11,018명	12,643명	14,479명	16,006명	18,104명	20,484명	

* (출처) 각 국 보건당국, WHO, 美 존스홉킨스대(미국, 독일) 통계 자료

* 국가별 발생 통계는 코로나19 홈페이지(<http://ncov.mohw.go.kr>) 참조

붙임3

코로나19 보도 준칙 [한국기자협회]

□ 한국기자협회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 (2020.2.21.)

- 다음은 2020년 2월 21일,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「코로나19 보도 준칙」의 주요 내용으로,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

1.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.

2. 세계보건기구(WHO)의 공식 병명은 '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'입니다.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.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, 사람 이름, 동물·식품 종류, 문화, 주민·국민, 산업,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. 지역명을 넣은 '○○페렴' 등의 사용은 국가·종교·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,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,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.

3.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·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,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.

※ 참조 :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,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

2020년 2월 21일

한 국 기 자 협 회

붙임4

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

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